

브라질, 농산물수출의 성장과 장애요인

김 상 현*

브라질은 세계 농·식품 수출시장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부정적인 공급요인에 의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내 수요증가로 인해 수출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농산물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 브라질의 개괄적인 농산물 수출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 등을 살펴본다.

1. 서론

브라질은 경제안정과 무역성장, 농업부문의 투자를 촉진시킨 규제개혁의 결과 국제 식료 및 농산물 시장에서 농산물 주요 수출국으로 급부상했다. 또한 브라질은 설탕, 에탄, 쇠고기, 가금육, 커피, 오렌지, 담배 등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세계 소득의 증대,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증대에 기여하는 풍부한 토지, 용수, 노동력 등의 요인들은 브라질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있다. 브라질은 미국과 EU와 같은 거대 시장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으로 대두, 돼지고기, 가금육 등과 같은 식료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식품 부문은 2005년 전체 무역흑자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브라질은 2005년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 세계 최대 수준인 27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경쟁국으로 부상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1999년 이후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농식품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었지만, 농업부분에 대한 특혜신용, 세금감면, 연구·유통부문의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보조금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농업부분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브라질 농업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은 농산물 수출을 꾸준히 확대하고, 시장과 농산물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 브라질 농업의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공급측면의 요인으로는 부정적인 거시경제 충격, 수송과 유통의 병목현상, 금융제약, 농지 확대감소 등이 있으며, 수요 측면의 요인으로는 고부가가치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증대, 바이오연료 산업의 성장에 따른 내수 증대 등이 있다.

2. 브라질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식품 산업

세계 11대 경제대국인 브라질은 지난 10년 동안 국제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해 왔다. 2005년 농업생산액은 GDP의 10%를 차지한 반면, 생산, 유통, 가공 부문을 포함한 농식품 부문은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했다. 고용인원은 노동력의 37%에 달하는 1,800만 명에 이른다. 또한 농식품 부문의 생산액은 2005년에 2,540억 원으로 GDP의 28%에 달한다.

브라질은 생산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농지의 확대와 생산성 증대로 농업을 성장시켰다. 농산물 생산 증가율이 소비자 수요 증가율을 앞서고, 이에 따른 잉여 생산물은 수출증대에 이바지 하였다. 더욱이 주요 경제정책과 농업정책이 농업부분의 투자유치를 유발하면서 수출 지향적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2005년 브라질 농산물 수입액은 34억 달러에 머문 반면, 수출액은 309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대두 및 가공품, 설탕, 에탄올,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등의 수출에 의해 주도되었다. 2000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20% 증가해왔다. 브라질의 주력 농산물 수출품목은 대두, 신선·냉장 육류, 커피, 오일 등을 포함한 주요 벌크 품목이나 가공 및 반가공 품목 등이다<표 1>, <그림 1>.

주요 벌크 품목 수출은 1997~2005년 동안 연평균 8%, 가공품목은 9%, 반가공 품목은 5% 증가했다. 과일, 채소, 화훼류, 견과류, 양념류 등의 원예작물 수출은 1997년 이후 연평균 10% 증가한 반면, 원예작물 수출 물량과 금액은 수출 대상국의 엄격한 위생 및 검역 조치로 인해서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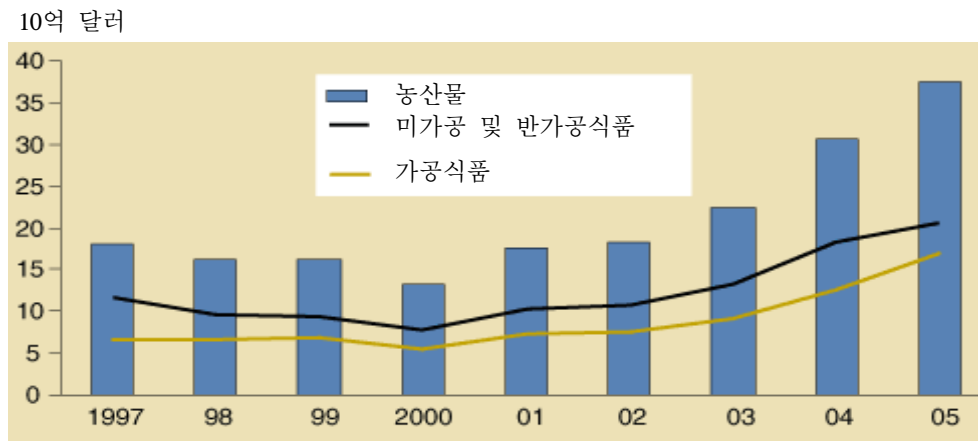
2000년 이후 가공 농식품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20%에 달한다. 식품산업은 새로운 가공기술 도입, 국제자본 유치, 수출기업의 부상에 따라 성장해 왔다. 2004~05년 신선·냉동 가공 육류, 유제품, 가공곡물 등과 같은 가공식품의 수출은 3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최근 농식품 수출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 벌크 품목의 수출은 2005년에 농식품 수출의 25%를 차지하였다.

표 1 브라질 농업의 현황, 2005년

품목	세계 순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총 수출액 (백만 달러)	2000~2005년 수출성장률(%)
	수출	생산			
설탕	1	1	42	3,919	20
에탄올	1	1	51	766	79
커피	1	1	26	2,533	11
오렌지주스	1	1	80	796	4
담배	1	1	29	1,380	15
쇠고기	1	2	24	2,944	32
가금육	1	3	35	3,770	31
대두	2	2	35	5,345	22
대두박	2	2	25	2,865	13
옥수수	4	3	35	121	48
돼지고기	4	4	13	1,252	40

자료: USDA, FAS(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 data)

그림 1 브라질 가공 및 미가공 농식품 수출현황



자료: USDA, FAS(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 data)

3. 안정적인 개혁을 통한 농업성장

브라질 농업의 급속한 팽창과 농식품 산업의 구조조정은 공업과 서비스 산업에 주력했던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 되었다. 1985년 단행한 경제개혁은 대두, 면화, 육류 등에 대한 농산물 수출 규제와 조세, 옥수수에 대한 수입 면허제를 철폐하였다.

1990년대 초기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입 조치를 철폐하면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밀, 우유 등에 대한 최소가격지지와 정부수매, 커피, 설탕, 밀에 대한 유통위원회 등을 철폐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의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인은 통화안정화대책(Real Economic Stabilization Plan: RESP)의 성공이었다. 1994년 이전 브라질 경제는 매년 1,000%를 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허덕였다. 통화정책 당국은 새로운 통화인 레알(the real)을 발행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매년 5%대로 낮추는 등 경제 안정에 노력하였다.

1999년 초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으로 레알화가 평가절하 됨에 따라 식품 및 농산물 생산업자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두와 옥수수 등의 생산이 급증하였다.

정부는 통화안정화대책을 통해 추가적인 국영무역기업의 민영화를 유도했으며, 해외투자 장벽을 철폐하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데 주력하였다. 한편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은 농업부문의 금융지원과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대두, 옥수수, 쌀, 식용 콩, 밀 등 주요 작물의 생산은 1990년에 1970년 수준의 두 배에 달하는 5,40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작물 생산량은 1970년대 수준보다 4배 증가한 사상 최대인 1억 800만 톤에 달하고 있다. 수출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작물 부문의 성장과 현대화를 부추긴 주요 요인은 브라질 돼지와 가금육 산업의 확대와 식품 수요의 동반 상승 등을 꼽을 수 있다.

식용 콩과 쌀 등 주요 1차 농산물의 생산이 인구 증가율과 같은 속도로 증가한 반면, 대두와 브라질 국민의 생계유지 작물인 옥수수 생산은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한편 소득증대로 인한 육류와 계란의 수요 증대가 혼합사료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돼지와 가금육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옥수수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4. 미래 농업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브라질 농업은 여전히 성장 여력이 있는 산업이다. 브라질 농업은 가용한 농경지의 1/3만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농업생산과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잠재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4.1.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

브라질은 1994~99년 동안 거시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 안정화를 달성했으며, 환율의 평가절하는 농식품 산업의 성장과 투자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최근 환율이 평가절상 되는 추세여서 농식품 산업의 성장 전망은 어두워졌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은 금리를 인상시켜, 달러 표시 자본을 유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자본 유입이 레일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에 따라 2004년 9월 이후 통화는 꾸준히 평가절상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식품과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2006년 7월까지 레알화가 달러화 대비 32% 평가절상 됨에 따라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가격은 다른 수출 경쟁국에 비해 1/4 정도 상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향후 레알화가 계속해서 평가절상 될 것으로 보여 농산물 수출업자들은 세계 농산물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해질 전망이다.

4.2. 금융지원 제약

식품 및 농산물 생산업자들은 작물과 축산 부문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금융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는 작물과 축산업 생산자들의 현행 부채 비율이 매우 높고,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농산업체와 상업은행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농가부채로 인하여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현재 무수익 대출(non-performing loan)은 농업생산액의 10%인 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저금리의 금융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브라질 농식품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자 붐의 효과가 위축되고 있다.

4.3. 농지확대의 한계와 인프라·수송·유통 지원 제약

확대 가능한 경지면적은 현재 6,200만 ha 농경지의 3배에 달한다. 농업 생산을 증대하고, 추가적인 경지를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 규모는 현재 정부의 가용 재정 능력을 초래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인프라, 수송 유통 지원의 제약에 따른 고비용 구조로 인해서 세계 식품 및 농산물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급속히 성장하는 농업 생산과 수출에 비해 저장설비, 항만시설, 도로와 철도의 개발은 뒤쳐지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의 대두 수출시 소요되는 물류비용이 평균 미국에 비해 83%, 아르헨티나에 비해 9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기타 요인

엄격한 SPS 규정은 동아시아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 시장으로의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발생으로 브라질 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대만 시장 등으로의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브라질 산 가금육은 한국과 일본 등의 시장으로 수출되었지만, 외래 뉴캐슬병으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시장으로는 여전히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 상대국과의 현안들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SPS 규정과 절차가 조정이 필요하다.

농산물의 사용용도(식용 혹은 산업용)의 구성 변화는 국내외 시장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브라질 바이오연료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곡물과 사료의 국내수요가 급증하였다. 브라질의 사탕무와 설탕, 에탄올 산업은 지난 5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였다. 현재 에탄올은 수송차량 연료의 37%를 차지한다.

한편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브라질은 대두, 해바라기, 면화, 팜유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바이오디젤 공학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디젤은 총 연료사용량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오디젤용 원료인 대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출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식품 소비변화와 내수 증대 등의 요인은 농산물 수출성장을 완화시킬 것이다. 높은 경제성장, 일인당 소득증대, 소득 분배의 균형, 꾸준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서 농식품에 대한 질적, 양적 요구가 보다 높아질 것이다. 한편 소득증대는 고품질 육류와 가공식품, 고부가가치 식품의 소비를 증가시킬 전망이다. 농식품에 대한 꾸준한 국내 수요증가와 소비패턴의 변화 등은 고부가가치 가공 농식품의 수출 성장을 완화시킬 전망이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AmberWaves/November06/Features/Brazil.htm>

USDA. ERS. "Brazil's Booming Agriculture Faces Obstacles" 발췌정리